

## 주5일 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홍승희<sup>1</sup>, 박정환<sup>2\*</sup>, 김영태<sup>3</sup>, 김형준<sup>4</sup>, 이영석<sup>5</sup>, 조태경<sup>6</sup>, 박병수<sup>7</sup>, 조정원<sup>8</sup>

###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Seung-Hee Hong<sup>1</sup>, Jung-Hwan Park<sup>2\*</sup>, Young-Tae Kim<sup>3</sup>, Hyoung-Jun Kim<sup>4</sup>,  
Youngseok Lee<sup>5</sup>, Tae-Kyung Cho<sup>6</sup>, Byung-Soo Park<sup>7</sup> and Jungwon Cho<sup>8</sup>

**요약** 본 연구는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분석하여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주5일수업제에 알맞은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체제 및 협력 관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perception on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and to suggest way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the curriculum should be reorganized based on current conditions, and based on problems of the actual condition, social infrastructure should be expanded. These will be contributed to taking root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in a transition period.

**Key words** :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curriculum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여유있는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단계적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결정되었고, 그동안 노동계 중심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질요구가 증폭되어 '제1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2002.7.1)' 조치가 있었으며, 2003년 8월 근로기준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마침내 주 40시간 근무제 사회로 돌입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11년에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근로기준법 2003.3.19.부칙).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주5일수업제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점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지금 우리의 교육은 주5일수업제 도입과 함께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였고 학생들의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제반 목표들이 실현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5학년도부터 시작된 주5일수업제 시행은

<sup>1</sup>제주중앙여자중학교 교사

<sup>2</sup>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sup>3</sup>원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sup>4</sup>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sup>5</sup>한양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sup>6</sup>상명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sup>7</sup>상명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시스템공학과 교수

<sup>8</sup>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박정환(edu114@cheju.ac.kr)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안에서 시수감축 없이 이루어져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과 교사에게 학습부담 및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목표 달성의 정도는 수정하지 않은 채 시간만 조절하여 과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 시행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가정·사회에 대한 교육력 회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를 파악하여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 문제와 제한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위의 인식을 바탕으로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따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및 그 학부모와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연구 범위는 내용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 현황, 교육과정,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주5일수업제의 필요성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교육 실시, 가족간의 유대 증진,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목적을 둔 주5일수업제가 확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주5일수업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학교교육 운영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주5일수업제에 거는 효과 중의 하나는 ‘과중한 학습량을 정선하여 감

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학생과 교사의 질적, 양적 ‘여유’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변화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1]. 주5일수업제는 학교교육의 새로운 형태로 그리고 과도하게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인권 및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운영 형태로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주5일수업제는 학교교육 편중화 현상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 공동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도인[2]은 주5일수업제가 가지는 교육적 의미의 입장에서 교육 ‘정상화의 일보’로 생각하여 추진하며, 주5일수업제는 「교육=학교」라는 과도한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학생교육을 바르게 평가하여 「주5일수업제=가정·사회 2일제」라는 관점에서 가정·학교·사회의 분담을 서로 확인하고 책임있는 교육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일수업제는 학교 활동만이 아니라 학교 외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중시한다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휴업일 학습 등에 대해서 학교와 가정, 사회의 공동적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5일수업제는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공동교육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주5일수업제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최근 교육 개혁은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학생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각종 체험학습을 정규 교과나 교과 외 활동과 연계하는 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다양한 능력을 키우는 학습을 지향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식 교수 방법이나 교실이라고 하는 제한된 학습 공간에서보다는 확대된 교육의 장(場) 속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보다 풍부하게 체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3].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자기주도적 학습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5일수업제는 삶의 질 측면에서 요구되는 ‘여유’에서 필요하다. ‘과도한 학습량을 감축하는 것’과 그에 따른 ‘여유’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대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주5일수업제는 매우 유의미한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주5일수업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여유는 단지 쉼이라는 의미보다는 학교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재 및 교수 방법 연구, 연수 참여, 그 밖에 취미 생활이나 자기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5일수업제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필요성은 주5일수업제가 현 교육에 대한 개혁적 요구 안에서 제기되는 것, 즉 ‘교육개혁’의 중심적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광희 등[3]이 지적했듯이 주5일수업제는 주6일에서 주5일로 단축되는 단순한 숫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관은 물론 지식, 교과, 교수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요구하는 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 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다.

### 2.2 주5일수업제 관련 선행연구 분석

최근 주5일수업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한 연구물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이경환[4], 박순경 등[5]의 정책연구, 이미라[6], 박상호[7], 성현주[8], 최홍식[9]의 석사학위 논문, 이도인[2]의 박사학위 논문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환 등[4]은 「주5일 수업대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박순경 등[5]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이미라[6]는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박상호[7]는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성현주[8]는 「주5일 수업제에 관한 중학교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연구」, 최홍식[9]은 「주5일수업제 도입 및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이도인[2]은 「주5일수업제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 탐색」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 선행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주5일수업제 사회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 제시된 정책 연구 및 석박사 학위 논문은 주5일수업제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먼저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여 정착 단계에 이른 외국 사례 분석 및 주5일수업제 시범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셋째, 주6일에 시행되던 학교 교육이 주5일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교육 내용 및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주5일수업제에 적절한 수업일수 및 내용, 방법 등 교육과정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선행 연구들은 가정-학교-지역 사회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 실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주5일수업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근거가 되는 바 사회적 기반 실태를 규명하고, 인프라 구축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3. 연구 방법

연구의 대상은 1,674명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06년 3월 16일 배포하여 24일까지 회수된 교사 300부 중 242부(회수율 80.67%), 학생 787부 중 767부(회수율 97.46%) 그리고 학부모 787부 중 625부(회수율 79.42%) 총 1,874부 중 1,634부(총회수율 87.19 %) 회수된 설문지를 유효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으며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그리고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관련문항으로 영역을 나누고 하위항목을 각 영역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조사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 작업을 거쳐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변인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5일수업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그 차이를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 $\chi^2$ )을 실시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주5일수업제의 교육과정

#### 4.1.1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점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1>, <표 4-2>와 같다.

표 4-1.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집단		전체
	교사	학부모	
제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	6(2.5)	109(17.6)	115(13.4)
제7차 교육과정을 주5일수업제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200(83.0)	311(50.2)	511(59.3)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35(14.5)	200(32.3)	235(27.3)
전체	241	620	861
$\chi^2(df)$	81.098(2)		.000

표 4-2.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집단		전체
	교사	학부모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 개선	120(49.8)	102(16.5)	222(25.8)
사회교육시설 확충	78(32.4)	378(61.1)	456(53.0)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21(8.7)	52(8.4)	73(8.5)
사회 인식 전환	22(9.1)	87(14.1)	109(12.7)
전체	241	619	860
$\chi^2(df)$	104.869(3)		.000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3%가 “제7차 교육과정을 주5일수업제에 맞게 조정(축소)하여 운영한다”, 27.3%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고 나타나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교사는 7차교육과정 조정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학부모들은 조정과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운영을 유사하게 지적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의미있다.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표 4-2), 전체 53.0%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5.8%가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로는 교사의 49.8%가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학부모의 61.1%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아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0.1% 수준).

4.1.2 교육과정 개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3>과 같다.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44.0%가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30.0%가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 수와 교과 내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여교사보다 남교사가, 교육프로그램개발은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0.1%수준). 교직경력별의 경우 교육과정운영의 자율권은 경력이 많을수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경력이 낮을수록 높게 반응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의미있다.

표 4-3. 교육과정 개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교사)(%)

	성별	교과목 수와 교과 내용 감축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 보장	교육 프로그램 개발	$\chi^2(df)$ p
	여	52(32.5)	71(44.4)	8(5.0)	29(18.1)	.001
직위	평균교사	53(32.5)	70(42.9)	14(8.6)	26(16.0)	4.247(3)
	보직교사	15(25.4)	29(49.2)	9(45.3)	6(10.2)	.236
교직경력	10년 미만	5(17.9)	11(39.3)	2(7.1)	10(35.7)	13.296(6) .039
	10~20미만	30(28.3)	51(48.1)	8(7.5)	17(16.0)	
	20 이상	37(35.2)	44(41.9)	14(13.3)	10(9.5)	
소재지역	제주시	36(31.0)	58(50.0)	11(9.5)	11(9.5)	14.355(9) .110
	서귀포시	17(34.7)	15(30.6)	9(18.4)	8(16.3)	
	북제주군	7(28.0)	11(44.0)	2(8.0)	5(20.0)	
	남제주군	13(25.5)	22(43.1)	3(5.9)	13(25.5)	
학교규모	11학급 이하	2(20.0)	5(50.0)	1(10.0)	2(20.0)	7.218(3) .065
	12~30학급 미만	50(33.3)	56(37.3)	17(11.3)	27(18.0)	
	30학급 이상	21(25.9)	45(55.6)	7(8.6)	8(9.9)	
	전체	73(30.0)	106(44.0)	25(10.4)	37(15.4)	

4.1.3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수업 부담과 해소방안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교사, 학생의 수업 부담과 해소방안은 <표 4-4>, <표 4-5>와 같다.

표 4-4. 평일 수업 증가에 대한 부담 정도(%)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부담을 많이 느낌	107(44.6)	348(46.7)	152(27.4)	607(39.4)
부담을 조금 느낌	119(49.6)	315(42.3)	272(49.0)	706(45.8)
부담이 없음	14(5.8)	82(11.0)	131(23.6)	227(14.7)
전체	240	745	555	1540
$\chi^2(df)$	85.607(4)			.000

표 4-5.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수업 부담 해소 방안(%)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수업부담 경감	39(16.3)	70(9.2)	68(11.0)	177(10.9)
학교 자율	95(39.6)	390(51.2)	272(44.1)	757(46.8)
수업시수 감축	83(34.6)	109(14.3)	108(17.5)	300(18.5)
업무부담 경감	12(5.0)	97(12.7)	67(10.9)	176(10.9)
6교시 넘지 않게	11(4.6)	95(12.5)	102(16.5)	208(12.9)
전체	240	761	617	1618
$\chi^2(df)$	85.542(8)			.000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교사, 학생의 평일 수업 부담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5.2%가 부담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교사, 학생, 학부모 순으로 부담을 지적했다(0.1% 수준).

주5일수업제를 운영으로 인한 수업 부담 해소 방안으로 “학교자율”(46.8%)을 가장 높게 반응했다. 집단별로 보면 학교자율의 경우 학생이 교사나 학부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의미가 있다.

## 4.2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 4.2.1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분석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지원체제(%)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 마련	113(46.7)	181(24.0)	222(36.2)	516(32.0)
가정·지역 사회의 협조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16(6.6)	93(12.3)	55(9.0)	164(10.2)
가정과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72(29.8)	227(30.1)	110(17.9)	409(25.4)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1(16.9)	253(33.6)	222(37.0)	521(32.4)
전체	242	754	226	1610
$\chi^2(df)$	80.070(6) .000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32.4%가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32.0%가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나타났다. 집단적으로 볼 때 교사의 46.7%가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나타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데 비해,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33.6%, 37.0%가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고 인식하여 당장 시급한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의미있다.

### 4.2.2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

회교육 시설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도서관, 독서실	41(16.9)	182(23.9)	174(28.3)	397(24.5)
체육·문화 시설	123(50.8)	388(50.9)	216(35.1)	727(44.9)
청소년 관련 단체	22(9.1)	78(10.2)	90(14.6)	190(11.7)
관공서 등에 학습을 돕는 지원센터	54(22.3)	35(4.6)	69(11.2)	158(9.8)
유익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2(.8)	80(10.5)	66(10.7)	148(9.1)
전체	242	763	615	1620
$\chi^2(df)$	120.645(8) .000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44.9%가 “학생들이 취미나 특기 활동을 위한 체육·문화 시설을 확충한다”, 24.5%가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고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교사는 체육·문화시설과 관공서 등에 학습을 돕는 지원센터를 선택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체육·문화시설과 도서관, 독서실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의미있다.

### 4.2.3 토요휴업일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

토요휴업일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토요휴업일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

	집단		전체
	교사	학부모	
학부모 도우미	13(5.4)	48(7.8)	61(7.1)
자원 봉사자	76(31.4)	80(13.0)	156(18.2)
지역의 전문 인사	56(23.1)	38(6.2)	94(11.0)
특기·적성 교육 강사	76(31.4)	356(58.0)	432(50.5)
학교 선생님	21(8.7)	92(15.0)	113(13.2)
전체	242	614	856
$\chi^2(df)$	108.563(4) .000		

토요휴업일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50.5%가 “특기·적성 교육 강사”로 나타났고, 18.2%, 13.2%, 11.0%, 7.1%의 순으로 각각 “자원 봉

사자”, “학교 선생님”, “지역의 전문 인사”, “학부모 도우미”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교사는 자원봉사자와 특기/적성 교육강사를 방안으로 제시한 반면,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특기/적성 교육강사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의미있다.

**4.2.4 적절한 프로그램 수**

토요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없어도 됨	63(26.0)	212(27.9)	67(10.8)	342(21.1)
1~2가지	95(39.3)	234(30.7)	312(50.2)	641(39.5)
3~4가지	67(27.7)	174(22.9)	169(27.2)	410(25.2)
5가지 이상	17(7.0)	141(18.5)	73(11.8)	231(14.2)
전체	242	761	621	1624
$\chi^2(df)$	108.195(6) .000			

토요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39.5%가 “1~2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토요휴업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및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5일수업제의 취지로 볼 때 가정·사회적 역할을 적극 홍보·안내하여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집단별로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순으로 프로그램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의미있다.

**5. 결론 및 제언**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대체로 현행 교육과정의 개정을 요구한다. 주5일수업제로 인해 “평일 수업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해결은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 해결”로 인식한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의 확대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교사는 “교육과정 구성 및 편제 개선”, 학부모는 “사회교육시설 확충”으로 인식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둘째,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구축 정도는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집단적으로 볼 때 교사는 후자(협력 체제)로 인식하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비해, 학생과 학부모는 전자(프로그램)로 인식하여 당장 시급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더 선호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구축 정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은 “체육문화 시설”, “도서관 및 독서실” 등으로 인식하며 토요휴업일에 개방하기에 적합한 학교 시설은 “도서관”, “학교 모든 교실 및 특별 교실”, “체육관”, “컴퓨터실”, “일반교실”순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토요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는 “1~2가지”로 인식한다.

따라서 주5일수업제는 단순히 학교 수업일수나 시간의 조정이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행정 제도의 보완,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총체적인 변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일반화된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연구,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단체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내용상 범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 현황, 교육과정,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관련 법령 개정, 학습 내용 적정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 더 나아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지역 교육청 및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학교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곧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가 시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목적의 달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효과성을 연구하는 평가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강원도교육청(2005). 2005학년도 월1회 주5일수업제 시행 대비를 위한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연수. 교육과정 연수자료 2005-03.
- [2] 이도인(2005). 주5일수업제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 탐색.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3] 정광희 외(2000).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 운영 방안 연구 - 학교 주5일수업제 도입과 실행 방안. 수탁연구 CR 2000-58. 한국교육개발원.
- [4] 이경환 등(2002). 주5일 수업대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2002년도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 답신보고. 학교교육과정연구회.
- [5] 박순경 외(2005).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6] 이미라(2002).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 박상호(2003).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8] 성현주(2003). 주5일 수업제에 관한 중학교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9] 최홍식(2004). 주5일수업제 도입 및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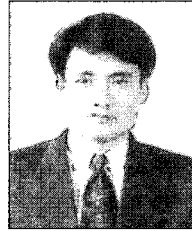
### 홍 승 희(Seung-Hee Hong) [정회원]



- 1996년 2월 :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문학사)
- 2006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현재 : 제주동여자중학교 교사

<관심분야>  
교육과정, ICT, 정보화교육, 교육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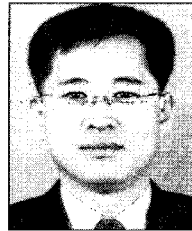
### 박 정 환(Jung-Hwa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ICT, 정보화교육, 교육공학, u-Learning, e-Le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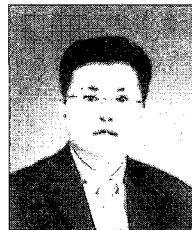
### 김 영 태(Young-Ta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5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6년 12월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수료 (박사과정)

<관심분야>  
ICT, 학교정보화, 교육공학

### 김 형 준(Hyoung-Jun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ICT, 학교정보화, 교육공학, 건축디자인

**이 영 석(Youngseok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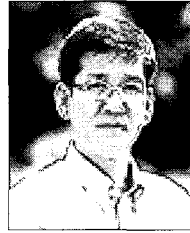
- 1998년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사)
- 2001년 :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과 (교육학석사)
- 2003년 ~ 현재 :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모바일 학습, 지능형 교육시스템, 멀티미디어 콘텐츠처리, 온톨로지

**박 병 수(Buong-Soo Park)**

[종신회원]



- 1986년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 1989년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1994년 : 텍사스 A&M (공학박사)
- 1995년 ~ 현재 : 상명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임베디드 시스템, 병렬 알고리즘

**조 태 경(Tae-Kyung Cho)**

[종신회원]



- 1984년 : 한양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공학사)
- 1986년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공학석사)
- 2001년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공학박사)
- 현재 : 상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초고속통신망, e-Learning

**조 정 원(Jungwon Cho)**

[종신회원]



- 1996년 2월 :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공학석사)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전파공학과 (공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보교육, 유비쿼터스 학습, 프로젝트 관리 및 평가, 멀티미디어 정보검색